



박영균  
채널A  
마케팅본부장

락을 짜고 있다. 10월 5일 채널A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캐스팅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잘나가는 연예인 위주로 캐스팅하다보니 식상하다고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았는데 채널A를 통해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아! 방송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본다.

김상훈 JTBC는 모기업의 자본력이나 컨소시엄 구성내용 등으로 볼 때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초기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 같다.

손병기 JTBC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아주 좋다. 객관적인 평가만큼 기대 수준도 높다. JTBC는 이미 과거에 TBC로 명성을 날렸던 방송사다. 지금의 중앙일보 건물이 종합매스컴센터로 설계되었다. 건설도중에 신군부 정권이 들어섰고, TBC가 지금의 KBS2로 바뀌었다. 새로 시작하는 JTBC는 이미 있는 공간에 장비만 새로 설비하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발이 빠를 수밖에 없다. TBC 출신 방송인들이 현재도 활약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JTBC의 창건에 합류했다. DNA가 남아있는 셈이다. 비즈니스 규모는 지상파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출발을 작게 하느냐 지상파 수준으로 시작하느냐의 고민은 없다. 지상파 수준의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JTBC의 콘텐츠에 대해 말한다. JTBC의 캐치프레이즈가 "콘텐츠제일(It's Content)"이다. 드라마는 외주 중심으로 제작하고, 예능은 자체제작한다. 메인뉴



채널과 콘텐츠의 증가로 광고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과학적 집행이 가능한 만큼 시장의 논리에 따라 단가와 판매방식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널A 역시 현재는 방송과 신문을 패키지로 판매할 계획은 없다. 다만 향후 광고주의 편의를 위해서, 광고주가 먼저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



스는 8시, 9시, 10시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드라마 '빠담빠담'은 정우성, '인수대비'는 채시라가 주연이고, '발효가족'은 송일국 등 스타들이 출연한다.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는 인기 텔런트 김혜자가 출연한다. 아침드라마도 있다.

요약하자면 지상파하고 프로그램 구성 자체는 비슷하다. 그러나 재미와 깊이는 지상파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에게 봉사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순환될 거라고 본다. 정공법으로 나갈 것이다.

김상훈 TV조선과 MBN도 강점에 대해 말씀 바란다.

박혁규 TV조선도 콘텐츠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모도 지상파급으로 도전한다. 주간 단위로 보면 드라마가 4개 정도 라인업 돼있는데, 편당 제작비 3억 내외의 볼륨으로 준비 중이다. 황정민이 캐스팅된 드라마 '한반도'는 지상파까지 포함해 최고 수준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이다. 기존 방송에 중편 4개사까지 늘어나 드라마 외주제작을 하다 보니 제작단가도 많이 오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초기에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TV조선의 방침이다. 시청률 높이고 채널경쟁률을 높이려면 인력이나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게 콘텐츠 투자라고 본다.

외부에 알려지기는 TV조선은 보도 위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보도가 25~30%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심야 뉴스 정도다. 그 외 드라마가 30%, 시사교양 25%, 예능 20% 정도로 보면 된다. TV조